친일파 송승헌·조폭 윤계상·싸이코 김남길

잘생긴 그들, 악역 변신 시험대

송승헌, '대장 김창수'서 악질 감옥소장
윤계상, '범죄도시'서 극악무도 범죄자로
김남길, '살인자…'서 살인마 연기 호평



'남자들의 변신은 무죄!' 영화 '대장 김창수' 송승헌, '범죄도시' 윤계상, '살인자의 기억법' 김남길(왼쪽부터)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벗고 악역으로 변신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이미지에 관객의 시선이 쏠린다. 사진제공 | 비에이엔터테인먼트·홍필름·W픽처스

잘 생긴 외모, 젠틀맨 이미지 그래서 왠지 착할 것만 같은 세 명의 꽃미남 배우들이 나란히 악역을 택했다. 고정된 이미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연기에 도전하려는 열망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관객과 만나는 만큼 이들은 아슬아슬한 시험대에 올라있는 셈이다.

배우 송승헌과 윤계상 그리고 김남길이 최근 개봉하는 영화에서 저마다 악역을 맡았다. 악랄한 친일파부터 사이코패스까지 그 모습도 다양하다. 그간의 출연작에서 언제나 '선의'의 편에 섰던 배우들인 만큼, 이들의 선택이 낯설면서도 신선하다.

송승헌은 10월19일 개봉하는 '대장 김창수'(제작 비에이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 악역에 도전한다.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시도다.

1896년 명성황후 시해범을 살해해 사형선고를 받은 청년 김창수의 이야기에서 송승헌은 조선인이면서도 일본의 편에 서서 조선인을 억압하는 감옥소장으로 나선다.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김창수를 악랄한 방법으로 고문하는 인물. 송승헌은 "연기한 내가 봐도 정말 나쁜 놈"이라고 했다. 연기하기도 쉽지 않았다. 첫 악역인 만큼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상대역인 조진웅을 비롯해 여러 등장인물을 구타하는 장면은 송승헌에게 커다란 숙제였다. "어떻게 하면 잘 때릴 수 있을지 고민했고, 진짜로 때릴 수밖에 없어서 긴장도 많았다"고 돌이켰다.

윤계상의 선택도 송승헌과 비슷하다. 추석인 10월4일 개봉하는 '범죄도시'(감독 강윤성·제작 홍필름)를 통해 처음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지금까지 맡은 역할과 너무 달라서 더 욕심이 났다"고 했다.

조선족 범죄조직의 보스 역의 윤계상은 '극악무도' '무자비'와 같은 단어로 설명되는 모습을 보인다. 외모 변화도 시선을 끈다. 범죄액션 영화에서 흔히 만나는 범죄자 그 이상의 모습을 위한 헤어스타일로 장발을 택했다. "악역이 가진 전형적인 이미지를 깨고, 더 기괴한 모습을 보이려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승헌·윤계상보다 먼저 악역을 소화해 호평 받는 주인공은 김남길이다. 개봉 2주째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는 '살인자의 기억법'(감독 원신연·제작 W픽처스)을 통해 처음으로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소화해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김남길은 그동안 보이지 않은 얼굴로 스크린을 채운다. 설경구와 벌이는 팽팽한 연기 대결도 볼거리. 최근 주연한 영화 '판도라'나 '어느 날'에서 인간미 넘치는 인물을 소화한 사실을 떠올릴 때 그의 탁월한 연기력은 주목할 만 하다.

이들의 악역 도전은 아직 관객의 평가를 남겨두고 있지만, 함께 작업한 제작진은 높은 만족감을 표한다. '대장 김창수'의 이원태 감독은 송승헌을 두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강한 눈빛이 새롭다"며 "앞으로 악역을 많이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다"고 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연예현장.jpg

다섯색깔 엘리스



'다섯 소녀들의 신비한 매력!' 걸그룹 엘리스(소희·가린·유경·벨라·혜성)가 3개월 만에 팬들 앞에 다시 섰다. 6월 '위, 퍼스트' 발매 이후 새롭게 선보인 두 번째 미니앨범 '컬러 크러시'는 이들의 강한 자신감을 엿보게 한다.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예스24무브홀에서 열린 '컬러 크러시'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이들은 자신의 톡톡 튀는 매력을 한껏 과시했다. 타이틀곡 '파우 파우'는 남자에게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두근거리는 여자의 마음을 터지기 직전의 화산에 비유해 가사에 옮겼다. 춤 역시 엘리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잘 묻어났다. 이정연 기자·뉴시스



KBS 2TV '란제리 소녀시대' 주역들. 왼쪽부터 방수진, 백은경, 서예슬, 보나. 사진제공 | KBS

란제리 소녀시대 '신선한 반란'

70년대 여고시절, 중장년층 추억 소환
후속작 시간벌기용 불구 시청률 선전

KBS 2TV 월화드라마 '란제리 소녀시대'의 상승세가 지난해 '백희가 돌아왔다'의 성과와 겹쳐지고 있다. 두 드라마는 '땜질용'으로 편성됐음에도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8부작 '란제리 소녀시대'는 '학교 2017' 종영 후 후속작 '마녀의 법정'의 촬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편성됐다. 4부작 '백희가 돌아왔다'도 '뷰티풀 마인드'의 제작이 지연되면서 급히 편성됐다.

두 작품 모두 불리한 조건을 이겨낸 선전이다. 11일 첫 방송한 '란제리 소녀시대'는 1회 4.3%(닐슨코리아), 2회 4.8%를 기록했다. 동시간대 MBC '왕은 사랑한다'가 기록한 6.1%, 6.9%와 차이가 크지 않다. 걸그룹 우주소녀의 보나, 김옥빈의 여동생 채서진, 서영주 등 출연자 면면도 '왕은 사랑한다'의 임윤아, 임시완, 홍종현 등에 비하면 '무명'에 가깝지만 신선함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란제리 소녀시대'의 힘은 이야기의 재미다. 1970년대 후반 여고생들의 성장통과 풋풋한 사랑을 주제로 중장년층 시청자의 추억을 '소환'했다.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낯선 시대상이 호기심으로 전달됐다. 정갈한 단발 헤어스타일, 빵집 데이트, 목에 두른 손수건 등의 복고 요소는 보는 재미를 더욱 높였다.

드라마의 인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시청자의 높은 관심에 2009년 2월 출간된 동명의 원작 소설은 11일 개정판 형태로 다시 출시됐다. 극중 채서진의 책꽂이에 꽂혀있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와 '생애 한 가운데' 등이 화면에 잡히면서 이들이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시청자의 관심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드라마 관련 게시물이 방송 2회 만에 25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건준 책임프로듀서는 13일 "출연자의 얼굴이 아직은 다소 낯설지만 캐릭터에 잘 녹아들어 시청자의 반감을 줄였다고 생각한다"며 "복고 감성은 세대를 떠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고 인기 요인을 분석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제2의 프듀'는 나야 나

방송사마다 서바이벌 오디션 봇물
KBS 2, 뜨지 못한 아이돌 '더 유닛' 론칭
JTBC, 양현석이 참가자 선발 'YG표 프듀'
MBC도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준비중

"제2의 '프로듀스 101'은 나야 나"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 1,2의 흥행 성공으로 각 방송사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는다. 기획단계를 거쳐 첫 방송까지 한달여 시간을 남겨둔 시점에 각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서바이벌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포맷이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각기 다른 차별점을 내세운다.

● '같은 듯 다른' 아이돌 서바이벌

가장 먼저 시작을 알린 방송사는 KBS 2TV다. '프듀' 시즌2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아이돌 서바이벌 예능에 뛰어들었다. 출연자들 대부분이 연습생 위주였던 '프듀'와 달리 데뷔했으나 소위 '뜨지' 못한 전·현직 아이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며 '더 유닛'을 론칭했다. 정식 프로그램이름은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으로 10월28일 첫 선을 보인다.

'프듀'의 '국민 프로듀서'처럼 "내 아이돌은 내가 뽑는다"는 콘셉트로 시청자가 직접 유닛으로 활동할 멤버들을 뽑는다. 음반을 낸 적 있는 가수라면, 남녀 누구든 참여할 있지만, 일반 연습생은 자격이 없다. 최근 빅스타 브레이브 걸스 티아라 소년공화국 달샤벳 다이아 와썹의 일부 멤버들이 출연소식을 전했다.

'더 유닛'과 동시 출격하는 JTBC 서바이벌 예능도 있다. 13일 현재까지 프로그램 이름은 확정되지 않았다. '프듀' 시즌1과 '쇼미더머니'를 기획한 한동철 PD가 최근 YG엔터테인먼트로 이직해 새로 론칭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YG표 프듀'로 불린다.

한동철 PD와 대형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손잡고 만드는 이 프로그램은 이미 데뷔한 가수 경력자들과 연습생의 구분 없이 출연시킨다. 애초 연습생 위주의 서바이벌 오디션으로 선보일 계획이었다가 출연자들의 영역을 확대했다. YG수장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연예기획사를 돌아다니며 직접 출연자들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MBC도 '프듀' 특수에 동참했다. 가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MBC는 '프듀'처럼 일반 연습생들을 위주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4일부터 MBC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일시 중단된 상태다. 파업 종료 후 방송 제작이 정상화되면 출연자 섭외부터 다시 시작한다.

각 방송사들의 출연자 섭외 경쟁으로 일선 연예기획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더 유닛'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뜨지 못한 가수들의 재데뷔'라는 인식 때문에 기존 가수들의 출연은 예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다른 방송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숫자뉴스

65세 '테이큰' 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 액션스타 리암 니슨이 액션 영화 은퇴를 선언하며 밝힌 자신의 나이다. 리암 니슨은 13일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참석해 "다치고, 싸우고, 복수하는 걸 반복하는 액션 영화에 그만 출연하겠다. 내 나이를 생각해라. 관객들도 결국 등 돌릴 것이다"고 밝혔다.

#해시태그 컷



오렌지빛 민효린 여성미 물씬

연기자 민효린이 오렌지 빛으로 물들었다. 오렌지색 볼 터치와 립스틱으로 여성스러운 매력을 과시한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민효린의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또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새하얀 의상, 무신경한 표정으로 청순미까지 뽐낸 그에게 팬들은 "예뻐요"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민효린 #과즙미 #오렌지빛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계 잡학상식



KBS 2TV '맨홀'이 1.4%로 역대드라마 최저시청률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시청률 맨홀에 빠진 맨홀

유료 방송인 케이블채널에서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시청률이 공영방송인 KBS에서, 그것도 평일 밤 '드라마의 꽃'인 수목드라마에서 역대 최저 시청률이 나온,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그 어려운 걸" KBS 2TV '맨홀'이 해냈다.

김재중과 유이가 주연한 '맨홀'이 8월31일 방송에서 1.4%(닐슨코리아)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 수치는 시청률 조사를 처음 시작한 1991년 이후 최저치다. 명색이 지상파 드라마가 1%대를 기록했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다. 누리꾼들은 "맨홀에 빠진 맨홀"이라 부르고 있다.

'맨홀'이 역대 드라마 가운데 최저 시청률이라는 '불명예'를 얻기 전까지는 2000년 4월 방송한 KBS 2TV '바보 같은 사랑'이 1.8%로 1위 자리를 지켰다. 불멸의 역사로 남아 있을 것만 같던 그 기록을 '맨홀'이 17년 만에 갈아 치운 것이다. 웬만한 케이블채널 프로그램도 1%가 나오지 않는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다.

'바보 같은 사랑'은 배종옥·이재룡 주연, 노희경 작가와 표민수 연출을 맡은 드라마. 서로를 동정하고 이해하면서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세세하게 풀어냈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했다. 방송 당시 경쟁작은 평균 시청률 50%를 기록한 MBC 사극 '허준'이다. '허준'은 역대 최고 시청률 드라마 '톱3'에 꼽힌다.

그 뒤로는 2007년 방송한 KBS 2TV 사극 '사육신'과 2014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가 각각 1.8%, 1.9%로 3위와 4위에 올라 있다. 1위부터 4위까지 KBS 2TV 드라마가 '사이좋게' 나눠가졌다. 5위는 정려원 오지호 주연의 MBC '가을 소나기'(2005)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